

## 다니엘 4장의 성경 내적 해석

- 반(反) 제국주의 비평과 고대 유대 문학의 수용 -

김대웅\*

### 1. 들어가는 말

최근 수십 년간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성경의 저자들이 기존 성경 본문들을 사용한 방식에 관심을 집중했다. 성경 저자들은 선배들이 작성한 작품을 사용하되, 그 작품의 요소들을 자기들의 작품 세계 속으로 정교하게 도입함으로써 독자/청중에게 알려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성경 저자들이 기존 성경 본문을 특정한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방식을 범주화하면서 학자들은 ‘상호 본문성,’ ‘영향,’ ‘반향,’ ‘인용,’ ‘모방,’ ‘표절,’ ‘모형,’ ‘개작’ 등 다양한 용어들을 제안했다.<sup>1)</sup> 특히, 구약학 분야에서는 고대 유대교 성경 해석 전통인 미드라쉬 연구에 기반한 ‘성경 내적 주석/해석’이나,<sup>2)</sup> 혹은 저자

---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교수, 구약학.

1) 서양 문학 일반의 연구물을 살펴보면, Udo J. Hebel, *Intertextuality, Allusion, and Quotation: An International Bibliography of Critical Studies* (Westport: Greenwood Press, 1989); 성경학 분야의 예를 보려면, Martin Jan Mulder and Harry Sysling, eds., *Mikra: Text, Translation,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Hebrew Bible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Assen: Van Gorcum, 1988); Sipke Draisma, ed., *Intertextuality in Biblical Writings: Essays in Honor of Bas van Iersel* (Kampen: Uitgeversmaatschappij J. H. Kok, 1989).

2) ‘성경 내적 주석’이라는 용어는 시편 연구에서 처음으로 쓰였다. Nahum Sarna, “Psalm 89: A Study in Inner Biblical Exegesis,” A. Altman ed., *Biblical and Other Stud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63), 29-46. 성경 내적 주석은 미드라쉬에

가 독자/청중과 의사소통하는 기법에 천착한 ‘문학적 인유’에 관심이 모였다.<sup>3)</sup> 피쉬베인(Michael Fishbane)이 전형적으로 그러하듯이,<sup>4)</sup> 성경 내적 해석(Inner-Biblical Interpretation)은 성경 저자들이 이전 본문의 모호함, 불충분한 세부사항, 의미의 충돌, 새로운 환경에 따른 본래 의미의 소멸 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띠는다고 주장한다.<sup>5)</sup> 그러나 쿠겔(James Kugel)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피쉬베인은 미쉬나와 탈무드의 랍비 저자들이 훨씬 늦은 시기에 발전시킨 주석 범주들을 그보다 선행 문헌인 성경의 저자들에게 적용한 오류에 빠졌다.<sup>6)</sup> 성경은 난해한 문헌이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지녔고, 온전히 조화되어 있는 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sup>7)</sup>

본 논문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로서 다니엘서의 성경 내적 해석을

대한 다음 두 가지 선구적 연구 성과에 의해 촉발되었다. Isaac Leo Seeligmann, “Voraussetzungen der Midraschexegeese,” G. W. Anderson, ed., *Congress Volume: Copenhagen, 1953* (Leiden: Brill, 1953), 150-181. Renée Bloch, “Ecriture et tradition dans l’e judaïsme: Aperçur sur l’origine du Midrash,” *CS* 8 (1954), 9-34.

- 3) 예를 들어, Benjamin Sommer, *A Prophet Reads Scripture: Allusion in Isaiah 40-66*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Jeffery M. Leonard, “Identifying Inner-Biblical Allusions: Psalm 78 as a Test Case,” *JBL* 127:2 (2008), 241-65; Yitzhak Berger, “Ruth and Inner-Biblical Allusion: The Case of 1 Samuel 25,” *JBL* 128:2 (2009), 253-72; Dalit Rom-Shiloni, “How can you say, I am not defiled ...?’ (Jeremiah 2:20-25): Allusions to Priestly Legal Traditions in the Poetry of Jeremiah,” *JBL* 133:4 (2014), 757-75.
- 4) Michael Fishbane, “Torah and Tradition,” Douglas A. Knight ed., *Tradition and Theology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1977), 275-300; idem, “The Hebrew Bible and Exegetical Tradition,” Johannes C. de Moor, ed., *Intertextuality in Ugarit and Israel: papers read at the tenth Joint Meeting of the 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y and Het Oudtestamentisch Werkgezelschap in Nederland en Belgie, held at Oxford* (Leiden: E.J. Brill, 1998), 15-30.
- 5) Geza Vermes, “Bible and Midrash: Early Old Testament Exegesis,” P. R. Ackroyd and C. F. Evan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ume I: From the Beginnings to Jero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29-46.
- 6) James Kugel, “The Bible’s Earliest Interpreters,” *Prooftexts* 7:3 (1987), 269-83.
- 7) James Kugel, *Traditions of the Bible: A Guide to the Bible As it Was at the Start of the Common Era*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1-41.

다룬다.<sup>8)</sup> 논자는 다니엘 4장의 창세기 기사에 대한 저자 다니엘의 해석적 사용을 기술하되, 바벨론이 대변한 인간 나라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저자의 신학적 비평을 규명하겠다. 이때 논자는 본문 간 유사성에 근거한 독자의 의미 창출 기능에 치중하는 상호본문성 연구보다는, 선행 본문으로서 창세기와 후행 본문으로서 다니엘서는 통시적 전후 관계를 설정하고 후행 본문 저자의 선행 본문에 대한 해석적 사용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에 천착할 것이다. 다니엘서의 내적 해석 분야는 이스라엘의 예언 전통의 맥락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므로,<sup>9)</sup> 이제는 오경 전통에 대한 다니엘서에 해석 활동을 고찰하는 연구가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 해석 전통을 이해하는 데에 적절한 도움이 될 것이다. 논자는 저자 다니엘의 창세기 사용 목적과 의도를 밝히고, 후행 본문 다니엘 4장과 선행 본문 창세기 11장의 주제적 연속성과 문학적 통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니엘 4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의 제국주의에 신실하게 맞서도록 고대 이스라엘 독자/청중의 저항정신을 고취한다.<sup>10)</sup> 다니

- 
- 8) 성경 내적 해석의 국내 사례를 보려면, 김대웅,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에 관한 성경 내적 해석,” *Canon&Culture* 10:2 (2016), 185-218.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 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궁중에서 지내며 경험했던 사건들과(1-6장) 이스라엘과 열방의 미래에 관한 환상들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책이다(7-12장). 다니엘서의 주전 6세기 저작 연대는 다니엘서의 내적 증거에 일치한다(단1:3; 10:1; 12:5-13; 참조 마 24:15; 막 13:14). 다니엘은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을 기록하였다(John Calvin, *Book of the Prophet Daniel Vol 1*, Thomas Myers, trans.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53], 77-82). 역사비평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다니엘서가 주전 2세기 중엽 마카비 항쟁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기존 서사부분에 묵시부분이 추가되어 최종 편집되었다고 주장한다. 마카비 가설에 대한 비평은, Edwin M. Yamauchi, “Hermeneutical Issues in the Book of Daniel,” *JETS* 23:1 (1980), 13-21; Stephen. R. Miller, *Daniel*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22-43; Andrew E. Steinmann, *Daniel*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8), 1-19.
- 9) 예. Michael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특히, 443-524 (“Part Four Mantological Exegesis”); G. Brooke Lester, “Daniel Evokes Isaiah: The Rule of the Nations in Apocalyptic Allusion-Narrative,” Ph. 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2006).
- 10) 다니엘서는 유대 묵시 문학이 열정적으로 대항했던 “제국주의 정치학에 관한 모든 것”이라 해도 좋다. 이에 관하여, Richard A. Horsley, *Scribes, Visionaries, and the Politics*

엘 4장은, 한편으로는, 고대 근동 제국주의 사상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회-종교적 갈등을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제국주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올바른 인식과 태도는 역사를 통제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통찰과 확신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한다.

논자는 우선 다니엘 4장이 창세기 11장 바벨 기사의 언어와 플롯을 공유하는 문예적 기법을 조사함으로써 저자의 주도면밀한 창세기 사용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논자는 다니엘 본문과 창세기 본문의 구성요소들이 각 책의 넓은 문맥 차원에서 상호 작용하며 생산하는 의미들을 탐구함으로써, 바벨론 제국주의의 통치권력 남용에 대한 저자의 신학적 비평을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자는 다니엘서의 제국주의 비평에 사용된 느부갓네살의 짐승변형 모티프가 제2성전기 유대 문학에서 수용되고 발전되는 양상을 「위-필로」와 「제3비록서」의 사례를 통해 조명하려한다. 그럼으로써, 다니엘서에 사용된 창세기 바벨 기사는 다니엘서를 거쳐 제2성전기 유대교 문헌에까지 긴 궤적을 남기며 성경 내적 해석의 뚜렷한 전통을 형성했음을 증명할 것이다.

---

*of Second Temple Judea*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173. Danna Nolan Fewell, *The Children of Israel: Reading the Bible for the Sake of Our Children*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117: 다니엘서는 “성경 중 가장 전면에서 정치적 패권에 맞서는 책이다”; Anthea Portier-Young, *Apocalypse against Empire: Theologies of Resistance in Early Judais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1), 223: “히브리 성경 중 어떤 책도 다니엘서처럼 제국주의 프로젝트에 명백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책은 없다.” 창세기의 바벨 기사(10-11장) 역시 고대 근동 제국주의에 대한 탁월한 소규모 신학 비평으로 규정할 수 있다. David Marcus, *From Balaam to Jonah: Anti-Prophetic Satire in the Hebrew Bible* (Atlanta: Scholars Press, 1995). 바벨 기사는 “환상적 상황”(p.11)과 “역설”(p. 16)을 통해 제국주의를 풍자한다. 더 철저한 분석은, Ze’ev Weisman, *Political Satire in the Bible* (Atlanta: Scholars Press, 1998), 39-50; Umberto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I from Noah to Abraham* (Jerusalem: Magnes Press, 1964), 226-30. 다니엘 1-4장 기사들은 대홍수 이후 인간 최초의 제국 바벨 및 그곳 건축자들이 시도했던 대규모 건축 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이에 관하여, Daewoong Kim,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Daniel: Literary Allusions in Daniel to Genesis and Ezekiel,” Ph. D. Dissertation (Rice University, 2013), 50-166.

## 2. 다니엘 4장의 창세기 비벨 기사 사용: 언어와 플롯의 계승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본 꿈의 내용(4:1-24[4-27])과 그 실현을 서신 형식으로 공표한다(4:25-30[28-33]).<sup>11)</sup> 이 고백은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의 송영으로 통합된다(3:31-33[4:1-3], 4:31-34[34-37]). 황제는 이 서신의 수신자 “민족들과 종족들과 언어들”에게(3:31[4:1])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찬미하며 그분의 제국이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가 무궁하리라 선포한다(3:33-34[4:2-3]).<sup>12)</sup> 특히, 느부갓네살은 비천한 짐승으로 살

- 11) MT 다니엘과 현대어 번역은 4장에서 석절의 차이가 있다. 우리말 성경 단 4:1-3은 MT 단 3:31-34이며, 우리말 단 4:4이 MT 단 4:1이다. 논자는 MT 장절을 먼저 표기하고 우리말 성경 장절을 병기하겠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MT 아람어와 히브리어 본문은 논자의 사역이다.
- 12) W. Sibley Towner, “The Poetic Passages of Daniel 1-6,” *CBQ* 31/3 (1969), 321. 이런 견지에서 단 3:33b와 4:31b은 시 145:13a와 내용상 유사하다(“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본 소고에서 논자는 한글성경에서 “나라”로 번역된 아람어 단어 “מְלָכָא” (ESV “kingdom”)를 다니엘서나 그와 관련된 정경 본문들의 정치적 내용이 다루지는 문맥에 따라 “제국”으로 번역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제국의 체제처럼 단일한 통치 권력으로 세상 전체를 통제하는 제국적 성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제국에 대한 다니엘서의 종말론적 전망은 중요해서 로마 제국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을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다니엘 7장의 인자를 닮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 권력을 받는다. 이 사상은 하늘에서 크게 외치는 선포자의 목소리로 요약된다: “세상 제국(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κόσμου)이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 제국이 되어 그가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βασιλεύσει)”(계 11:15). “מְלָכָא/βασιλεία”는 라틴어 “imperium”에 해당한다(Wes Howard-Brook & Anthony Gwyther, *Unveiling Empire: Reading Revelation Then and Now* [Maryknoll: Orbis Books, 1999], 224). 공관복음에서 메시아 예수는 “βασιλεία”로 “제국”을 가리킨다. 그가 이 단어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켜 말할 때, 로마 제국이 같은 단어로 지시되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Stephen J. Patterson, “The End of Apocalypse: Rethinking the Eschatological Jesus,” *TT* 52 [1995], 44). 다니엘서의 통치 신학 전통에 근거하여,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으로 “세상 제국”을 가리킨다(계 4:8; 16:19; 17:5; 18:2, 10, 21). 그리하여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처럼 정치적 성격의 종말론을 수립한다. 전 세계에 미치는 통치 권력은 세상의 초강대국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제국과 그의 아들 “통치자,”

있던 경험을 순회하며 통치 권력에 대한 자신의 그릇된 태도를 취소하고 교정한다(3:15, 33[4:3], 4:34[37]). 느부갓네살의 독특한 짐승 체험은 그의 꿈 환상과 그 실현을 통해 소개된다. 그의 꿈 환상 속에는 거대한 나무가 등장한다. 나무는 “땅의 중앙”에서 자라났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다”(4:7-8[10-11]). 갑자기 출현한 하늘의 전령은 나무의 그루터기만 남기고 송두리째 잘라내라는 엄명을 내린다(4:15). 이 초현실적 나무의 정체는 인간으로 암시된다(“그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서 변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하라,” 4:13[16]).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의 꿈 환상과 변형 경험은 고대 근동 문학 및 히브리 정경 전통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은 우주를 상징하는 신화적인 나무,<sup>13)</sup> 앗수르 종교의 생명나무,<sup>14)</sup> 바벨론의 토착적 나무 이미지들,<sup>15)</sup> 신 바벨론 제국 나보니두스의 황제의 질병 치유 기사<sup>16)</sup> 등이

---

곧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에게 넘겨진다(계 17:14, 19:16). 이에 관하여, Stephen D. Moore, *Empires and Apocalypse: Postcolonialism and the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6), 99.

- 13) André Lacocque, *The Book of Daniel* (Atlanta: John Knox Press, 1979), 73. 이 이미지에 관하여, 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London: Sheed & Ward, 1958), 298-300; G.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trans. J. E. Turne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38), 55-58. Stephen L. Cook, “Mythological Discourse in Ezekiel and Daniel and the Rise of Apocalypticism in Israel,” Lester L. Grabbe and Robert D. Haak eds., *Knowing the End from the Beginning: The Prophetic, the Apocalyptic and their Relationships*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3), 97-103. 혹은 다니엘 4장의 우주적 나무 이미지는 에스겔 31장의 영향을 벗어나 묵시적 사상의 발전을 드러낸다고 평가한다.
- 14) Simo Parpola, “The Assyrian Tree of Life: Tracing the Origins of Jewish Monotheism and Greek Philosophy,” *JNES* 52:3 (1993), 167.
- 15) Matthias Henze, *The Madness of King Nebuchadnezzar: The Ancient Near Eastern Origins and Early History of Interpretation of Daniel 4* (Leiden: Brill, 1999), 73-4.
- 16) John J. Collins, “Prayer of Nabonidus,” J. C. VanderKam ed., *Qumran Cave 4, XVII: Parabiblical Texts, Part 3* (Oxford: Clarendon Press, 1996), 83-94; Lawrence M. Wills, *The Jew in the Court of the Foreign King: Ancient Jewish Court Legend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90-8; Peter W. Flint, “The

고대 근동의 문학적 맥락으로 제시되었다. 이스라엘 예언 전통의 견지에서, 에스겔 19장의 포도나무,<sup>17)</sup> 31장의 백향목,<sup>18)</sup> 이사야 14장의 아침의 아들 등이 다니엘 4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sup>19)</sup> 그러나 제국의 권력을 거대한 나무로 형상화한 점에서, 에스겔 31장의 잇수르 묘사가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 묘사와 가장 밀접한 문학적 유비라 할 수 있다.<sup>20)</sup> 이 두 본문은 ‘인간의 과도한 교만과 그에 대응하는 창조주의 형벌’ 주제를 공유한다. 학자들은 이 주제의 원천을 창세기 11장의 바벨 기사에서 찾는다.<sup>21)</sup> 구체적으로, 다니엘 4장의 저지는 창세기 11장 1-9절의 플룻 유형, ‘초월 세계를 향한 인간의 도전적 상승과 인간 세계를 향한 창조신의 징계적 강하’를 다시 사용한다. 이때 바벨론 제국에 대한 풍자적 묘사에 초점이 맞춰진다.<sup>22)</sup> 창세기의

- 
- Daniel Tradition at Qumran,” John J. Collins and idem eds., *The Book of Daniel: Composition and Reception Vol II* (Leiden: Brill, 2001), 332-8; 강승일, “유대 문헌에 네부카드네자르로 나타난 나보니두스의 전승,” 「인문과학연구」 45 (2015). 201-20.
- 17) Helge S. Kvanvig, *Roots of Apocalyptic: The Mesopotamian Background of the Enoch Figure and the Son of Man*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88), 476-80; Mathias Delcor, *Le Livre de Daniel* (Paris: J. Gabalda et Cie Éditeurs, 1971), 112, 114; Lacocque, *The Book of Daniel*, 77.
- 18) Martin Metzger, “Zeder, Weinstock und Weltenbaum,” D. R. Daniels et al., eds., *Ernten, was man sät: Festschrift für Klaus Koch zu seinem 65 Geburtsta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1), 197-229; idem, “Der Weltenbaum in vorderorientalischer Bildtradition,” W. Härle et al., eds., *Unsere Welt-Gottes Schöpfung: Eberhard Wölfel zum 65 Geburtstag am 16 April 1992* (Marburg: N. G. Elwert Verlag, 1992), 1-34.
- 19) 이에 관하여, Henze, *The Madness of King Nebuchadnezzar*, 551-4.
- 20) Delcor, *Le Livre de Daniel*, 112, 114; Lacocque, *The Book of Daniel*, 77.
- 21) Louis F. Hartman, “The Great Tree and Nabuchodonosor’s Madness,” John L. McKenzie, S.J. ed., *The Bible in Current Catholic Thought*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62), 78; Alexander A. Di Lella, “Daniel 4:7-14: Poetic Analysis and Biblical Background,” Henri Cazelles et al. eds., *Mélanges bibliques et orientaux en l’honneur de M Henri Cazelles* (Kevelaer: Butzon & Bercker, 1981), 255, 257-8. 같은 이미지가 메시아 예언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인다(예. 사 11:10; 겔 17:22-23; 호 14:5-7).
- 22) 플룻 유형에 관하여, Benjamin Hrushovski, “Theory of the Literary Text and the Structure of Non-Narrative Fiction: In the First Episode of War and Peace,”

바벨 기사에서처럼 다니엘 4장에서도 지상 나라 인간의 정치적 권능은 창조신의 하늘 영역으로 올라가 침입을 시도하고, 하늘의 창조신은 인간 집단의 반역적 도전을 좌초시키며 자기의 절대 주권을 확립한다. 이 플롯 유형은 “인간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권력”을 입증하는 창세기 바벨 기사의 주제를 다니엘 4장의 새로운 문맥 속에 연결해 준다. 그럼으로써 두 본문의 친밀성이 강화된다.<sup>23)</sup>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 독자/청중은 창세기 11장과 다니엘 4장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이 플롯 유형을 파악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두 본문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새로운 문학적 지평 위에서 다니엘 4장 저자가 강조한 인간 제국의 정치적 욕망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견고히 붙들었다.

다니엘 4장의 저자가 창세기 11장 바벨 기사의 플롯을 다시 사용하는 방식은 두 본문의 언어와 주제의 호응과 침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나무로 반복 등장한다. 이 나무는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 닿는데” (רַמְתָּא לְשָׁמַיָא, 4:8, 17[11절, 20절]). 다니엘은 “하늘에 닿은” 이 나무의 끝을 느부갓네살의 “위대함”으로 규정한다(4:19[22]). 여기서 저자는 이 나무의 높이 묘사를 통해 창세기 바벨의 인류가 건축하려 했던바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있는”(רִאשׁוֹ בְּשָׁמַיִם) 탑을 성공적으로 재현한다(창 11:4). 그럼으로써 인간이 창조주의 하늘 영역을 침범하려고 상승을 시도한다는 창세기 모티프를 다니엘 4장의 서사 속에 활성화시킨다. 다니엘 4장 저자의 의도적인 창세기 바벨 기사 사용은 창세기 탈굦 아람어 “그것의 끝이 하늘에 닿도록”(רִישָׁיהָ מְטִי עַד-צִיַּת שְׁמַיָא)<sup>24)</sup>과

PT 9/3 (1988), 639.

23) Steven Goldsmith, *Unbuilding Jerusalem: Apocalypse and Romantic Represent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65-6.

24) Alexander Sperber, ed., *The Pentateuch according to Targum Onkelos, Vol. 1 of Bible in Aramaic, Based on Old Manuscripts and Printed Texts* (Leiden: Brill, 1959), 15. 다른 탈굦들의 극히 사소한 변이형들은 우리의 논의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 *Tg. Ps.-J. Gen 11:4a* “רִישָׁ” (Ernest G. Clarke, *Targum Pseudo-Jonathan of the Pentateuch: Text and Concordance* [Hoboken: Ktav Publishing House, 1984],

다니엘서 아람어 “당신의 위대함이 하늘에 닿았으니”(מִטָּת לְשָׁמַיָא וְשָׁלְטָנְךָ)의 친밀성으로 증명된다(탈굄 창 11:4, 단 4:19[22]). 다니엘 4장에 네 번 사용된 아람어 동사 “닿다”(מִטָּא)는 탈굄 창세기 11장 4절에서도 세 번 반복되는데, 다니엘서 아람어 “그것의 높이”(רִגְמָה)와 “하늘을 향하여”(לְשָׁמַיָא)는 탈굄 아람어 “그것의 꼭대기”(רֵאשִׁי)와 “하늘을 향하여”(עַד-צִיַּת שָׁמַיָא)와 조화된다(단 4:8, 17[11, 20], 창 11:4).

다니엘 4장의 저자는 창세기 바벨 기사의 플롯을 다시 사용하되, 여호와 의 지상을 향한 하강을 인간의 하늘을 향한 상승보다 훨씬 더 강조한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오직 나무 하나뿐이다. 그러나 “순찰자”와 “한 소리”와 “한 명령”이라는 세 가지 실체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느부갓네살의 지상으로 “내려온다”(4:10, 20, 21, 28[13, 23, 24, 31]).<sup>25)</sup> 저자는 인간 제국의 황제를 철저히 통제하는 절대자의 능력에 역점을 둔다. 이 능력은 느부갓네살의 짐승 변형 사건으로 가장 잘 드러난다. 또한, 저자는 동사 “מִטָּא”를 반복하며 하늘의 하나님과 지상의 느부갓네살이 벌이는 수직적 대결을 묘사한다. 나무의 높이가 “하늘로 닿자”(מִטָּא)(4:8, 17[11, 20]), 지극히 높으신 분의 준엄한 명령이 “왕에게 내려온다”(מִטָּא, 4:21[24]). 다니엘 4장의 저자는 순찰자의 내려움을 통해 창세기 여호와와의 내려오심을 재현한다. 옛 바벨의 건축자들이 하늘로 높이는 “탑을 보려고 여호와가 내려왔듯이”(וַיֵּרַד יְהוָה לִרְאוֹת אֶת-הָעִיר)(단 4:10, 20[13, 23]), 이제 그가 파송한 전령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다”(עִיר וְקָדִישׁ מִן-שָׁמַיָא נָחַת)(창 11:5; 참조 7절[우리가 내려가자(וַיֵּרְדוּ הָרְדָה)]).<sup>26)</sup>

11). *Tg. Neof. Gen 11:4a* “רֵאשֶׁה”/“רֵאשִׁיה” (Alejandro Díez Macho, *Neophyti 1: Targum Palestinense MS de la Biblioteca Vaticana Tomo I Génesis* [Madrid: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1968], 59).

25) 4:10[13], 20[23]의 표현이 4:20[23]에서는 동사 위치만 바뀐 채 반복된다:  
עִיר וְקָדִישׁ מִן-שָׁמַיָא נָחַת

26) George W. Buchanan, *The Book of Daniel* (Lempeter: The Edwin Mellen Press, 1999), 116; C. L. Seow, *Dani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67-8.

다니엘 4장 저자의 창세기 바벨 기사 사용은 그의 아랍어 “이르”(עיר, “순찰자”)와 창세기 히브리어 “이르”(עיר, “도시”)가 호응되며 더 정교해 진다(단 4:10, 14, 20[13, 17, 23], 창 11:5, 7).<sup>27)</sup> 별개의 두 본문을 동음이의어로 연결하는 이 기법은 고대 유대교 성경 해석에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시편 1편 미드라쉬에 따르면, 바벨 건축자들이 세운 “도시”의 정체는 그들이 숭배한 하늘의 “순찰자”인데, 이 “순찰자”는 느부갓네살이 본 “순찰자”와 연결된다(창 11:4, 단 4:10[13]).<sup>28)</sup> 다니엘 4장의 유대인 독자/청중은 이 동음이의어들의 관념적 호응을 통해 저자가 암시한 내용도 파악했을 것이다. 저자는 창세기의 “이르”(도시)가 바벨의 건축자들에 의해 그 꼭대기가 하늘을 향해 높아졌다면, 다니엘의 “이르”(순찰자)는 (마치 바벨의 “이르”[도시])

27) 아랍어 본문을 보려면, Luis Díez Merino, “Los ‘vigilantes’ en la literatura intertestamentaria,” N. Fernandez Marcos et al., eds., *Simposio Bíblico Español: Salamanca, 1982* (Madrid: Universidad Complutense, 1984), 575-605. John J. Collins,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224-6. 이처럼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인유 생성 기술은 이야기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이에 관하여, Sommer, *A Prophet reads Scripture*, 140. 숨머는 발췌의 다음 저작을 인용한다. Klaus Baltzer, “Schriftauslegung bei Deuteroseja?— Jes 43,22-28 als Beispiel,” Manfred Görg et al., eds., *Die Väter Israels: Beiträge zur Theologie der Patriarchenüberlieferungen im Alten Testament*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89), 11-6. 이 기법은 라틴 고전 작품들에서도 관찰된다. John Hollander, *The Figure of Echo: A Mode of Allusion in Milton and Aft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113.

28) 미드라쉬 테헬림 시 1:1 참조. “오라, 우리가 한 순찰자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짓자(창 11:4) ... ‘보라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단 4:10)고 했듯이, 그들은 ‘순찰자’라는 명칭으로 한 신을 가리켰다”(Buber Salomon, *Midrash Tehilim* [Jerusalem: H. Vagshal, 1976], 12, William G. Braude, *The Midrash on Psalms Vol I*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17). 이 미드라쉬 저자는 창 11:4의 “도시”를 바벨의 건축자들이 세우려 한 일종의 우상으로 설명한다(비슷하게, Tg. Neof. Gen 11:4, Gen. Rab. 38:8). 바벨탑 건축을 우상 숭배로 규정한 고대 유대교 해석을 보려면, Kugel, *Traditions of the Bible*, 239-40. 히브리어 성경에서 다니엘 4장에만 쓰인 이 아랍어는 흔히 “순찰자”로 번역된다. 이 아랍어의 문자적 의미는 “깨어있는 자”인데, 천상에서 활동하는 감시자로 제2성전기 유대문헌에서 널리 확인된다. 1 En. 10:9, 12:3, 13:10, 16:2, 22:6; Jub 4:15; T. Reu. 5:6-7; T. Naph. 3:5; CD 2:18; 1Qap Genar 2:1, 16, 4QMess ar (4Q534/4QNoah ar) 2:16, 18.

를 징계하신 여호와와 기세로) 바벨론 황제라는 치솟은 나무에게 내려왔다고 암시한다(창 11:4, 단 4:10, 20).

하늘로 상승하는 도시(히. “이르”)의 도전과 땅으로 강하하는 순찰자(아. “이르”)의 징계는 천상의회 사상을 통해 심화된다. 바벨 도시로 내려온 여호와는 한분이다(“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창 11:5). 그런데 여호와가 바벨의 건축자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독백은 그가 다른 신적 존재들과 협력하시는 모습을 시사한다(“자, 우리가 내려가서 ... 못하게 하자,” 창 11:7). 여호와와의 이 발언은 그들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sup>29)</sup> 이 창세기 본문을 사용하는 다니엘 4장 저자는 그들이 여호와와 천상의회원들이라는 자신의 해석을 집어넣는다. 다니엘 4장에서 순찰자는 창세기 여호와처럼 단수로 등장하고 여호와와 행동을 환기하며 지상에 하강하지만(4:10[13]), 그와 동시에, 이 순찰자는 하늘에 닿은 나무에 대한 형벌이 “지극히 높으신 이”와 그를 섬기는 “순찰자들”로 구성된 천상의회에서 결정되었다고 선포하기 때문이다(4:14[17]).<sup>30)</sup>

### 3. 다니엘 4장의 창세기 바벨 기사 사용: 문맥 차원의 상호 작용

일단 다니엘 4장의 유대인 독자/청중이 창세기 바벨 기사의 플롯 구조가 다니엘 4장에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본문의

29) 요벳서 10:22-23에서 그들은 천사들이다. 비슷하게, 필론은 창 1:26과 3:22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그의 “동역자들에게”(συνεργοῖς), 즉 “모든 존재자들을 조력하고 구원하는 권능들”(συνάμεις ἀρωγούς και σωτηρίους τοῦ γενομένου πάσας)로 불리는 무수한 천사 시종들에게 말씀한다고 설명한다(Philo, *Conf.* 168, 171). 참조. F. H. Colson and G. H. Whitaker eds., *Philo: with an English Translation. Vol. 4* (London: William Heinemann LTD, 1932), 102-104. Kugel, *Traditions of the Bible*, 241-2.

30) 단 4:14의 저자는 왕상 22:19과 욥기 1-2장의 천상의회와 비슷한 초월적 의결기구를 알고 있다. 이에 관하여 Aage Bentzen, *Daniel* (Tübingen: Verlag von J. C. B. Mohr, 1952), 43. Ernst Haag, *Daniel* (Würzburg: Echter Verlag, 1993), 43.

여러 요소들이 정교하게 호응하며 구성하는 관계들을 발견하게 된다. 논자는 다니엘 4장의 저자가 창세기 기사의 여러 요소들을 자기의 저작에 도입하여 독자/청중의 이해 과정을 간접하는 방식을 설명해 보겠다.

다니엘 4장의 저자는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유능하고 이기적인 건축자로 그린다. 그는 바벨론에서 이룬 건축 사업에 흠족해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는 자기 “집”에 “편히 있고” “궁”에서 “평강한 채” 사치를 누리며, 자기의 막강한 정치권력을 자부하듯 “내 왕궁으로 삼으려고 내 권능의 강함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내가 건축한 위대한 바벨론”(בְּבָלָ רִבְתָּא דִּי-אַנְהָ בְּנִיחָהּ לְבֵית מְלָכֵנוּ בְּחֻקָּה חֲסִנִּי וְלִיקָר הִדְרִי)을 바라본다(1[4절], 27[30]절).<sup>31)</sup> 저자는 이런 느부갓네살 묘사를 통해 황제의 오래 전 선배들인 도시 국가 바벨의 건축자들을 독자/청중에게 환기시켜 준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를 건축하자”(וְנַבְנֶה-לָּנוּ עִיר ... וְנַעֲשֶׂה-לָּנוּ שָׂם)라며, 창조주의 하늘을 뒤흔들 위대한 인간의 도시 건설을 기획한다(4절). 하지만 그들은 “그 도시 건축을 멈추게”(וַיִּחְדְּלוּ לְבִנַּת הָעִיר) 되고 이름도 내지 못한다(4절). 이 점과 관련하여 저자는 느부갓네살을 그들과 크게 대비한다. 느부갓네살은 마치 자기 선배들이 실패했던 목표를 완수라도 한 듯이, “위대한 바벨론” 건축을 통해 자기의 “위엄”의 “영광”을 높였다고 자부한다(단 4:27[30]). 그가 세운 바벨론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8[11]절 17[20]절 19[22]절). 이것은 바벨의 건축자들이 실패한 궁극적 목표의 성취로 암시된다.<sup>32)</sup>

분명히 다니엘 4장의 저자는 창세기 바벨의 탑 이미지를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나무 이미지 속에 불러 넣는다. 다니엘 4장의 나무 묘사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묘사를 뚜렷이 공명(共鳴)한다(단 4:19[22], 창 11:4). 이때 저자는

31) 오만방자한 황제의 입에서 나온 표현 “위대한 바벨론”(βαβυλωνῆς μεγάλη, LXX 단 4:27)은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하는 요한계시록의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다(계 16:19, 17:5, 18:10, 21).

32) 느부갓네살의 건축가 면모를 보려면, 그의 제15비문에 나열된 대규모 건축 사업들을 참조하라. Stephen Langdon, *Building Inscriptions of the Neo-Babylonian Empire: Part I Nabopolassar and Nebuchadnezzar* (Paris: Ernest Leroux, 1905), 119-41.

이 나무의 위치 설정을 통해 느부갓네살과 그의 제국의 미래를 옛 바벨의 암울한 그늘 아래로 집어넣는다. 이 거대한 “나무”가 심겨진 “땅의 중앙”(מִן הָאָרֶץ)은 바벨탑이 세워진 위치와 사실상 일치한다(단 4:7[10]). 홍수가 끝난 후 인류는 “온 지면에 흠어지지 않기 위해”(פְּרֹנְפוּיָן עַל־פְּנֵי כָּל־הָאָרֶץ) 시날 땅을 유일한 거주지로 삼는다(창 11:4). 그들이 세우려고 계획한 거대한 탑의 위치는 인류의 “중앙” 거주지요, 인류 연합의 상징으로서 유일한 회집 장소였다.<sup>33)</sup> 건축자들의 이 목표는 역설적으로 실현된다. 여호와는 그들을 장차 바벨로 불리게 될 “그곳으로부터 온 지면 위에 흠으셨다”(8절 כָּל־הָאָרֶץ עַל־פְּנֵי מַשָּׁם הַפְּיָצָה יְהוָה עַל־פְּנֵי כָּל־הָאָרֶץ, 9절 מִן הָאָרֶץ יְהוָה עַל־פְּנֵי כָּל־הָאָרֶץ). 그 결과 바벨은 인류가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세상 사방으로 흠어질 때(창 10:5; 참조 20절, 31절) 출발점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땅의 중앙이 된다.<sup>34)</sup> 여호와는 탑 건축자들이 단결하여 정착하려고 결정한 바로 그 장소를 폭발적인 대분산의 중심점으로 삼되, 그들의 목표를 정확히 좌절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다니엘 4장의 저지는 바벨을 인류의 분산 정착 과정의 중심으로 이해한 고대 이스라엘의 집단적 기억을 유대인 포로들에게 되살려 준다.<sup>35)</sup> 이 기억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이방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으며 연단의 기간을 극복했던 신실한 유대인들의 역사적 정황 및 그들의 확신을 반영한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인류의 “전 세계적 결속”의 새 중심으로 삼고자 했다.<sup>36)</sup> 창세기의 바벨 사건을 알고 있는 유대인 포로들은 그의 기획을 인간이 자기 창조주의 권세에 다시 도전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것이

33)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I from Noah to Abraham*, 243.

34) Weisman, *Political Satire in the Bible*, 50.

35) 다니엘서의 바벨론 묘사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집단 기억이다. 이에 관하여, Matthias Henze, “Babylon Remembered: Nebuchadnezzar in the Collective Memory of Ancient Israel,” Károly Dániel Dobos and Miklós Kőszeghy eds., *With Wisdom as a Robe: Qumran and Other Jewish Studies in Honor of Ida Fröhlich*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9), 108-20.

36) Weisman, *Political Satire in the Bible*, 48.

다.<sup>37)</sup> 그런 맥락에서, 다니엘 4장의 저자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인간의 제국”(מְלֻכּוֹת אֲנָשָׁא)<sup>38)</sup>으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명명함으로써 홍수 이후 바벨에서 “인간이 건설한 도시와 탑”(הָעִיר ... הַמְּגִדָּל אֲשֶׁר בָּנוּ בְּנֵי הָאָדָם)<sup>39)</sup>과 그 중국을 자기의 독자/청중에게 환기시킨다(단 4:14[17], 22[25], 29[32], 창 11:5). 창세기의 바벨은 인류가 처음으로 건설한 도시 국가요(창 10:10), 니므롯이 주도하여 세운 첫 “제국”(מְלֻכּוֹ)이기도 하다(*Tgs. Onq., Ps.-J., Neof.* 창 10:10). 다니엘 4장의 저자는 자신의 독자/청중에게, 마치 대홍수 이후 여호와가 인류를 온 세상에 흠으시며 징계하신 니므롯의 바벨처럼, 장차 느부갓네살과 그가 세운 바벨론 역시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암시한 것이다.

이 사실은 저자가 창세기 바벨 본문을 해석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자료로 더욱 보강된다. 창세기의 여호와는 니므롯의 제국 바벨의 건축자들을 세상의 중심에서 몰아내며 “흠으셨다”(רָבַב, *Tgs. Onq., Ps.-J.* Gen 11:8, 9). 다니엘서 저자는 여호와의 이 행동을 “그것의 열매를 흠으라”(רָבַבְתִּי, 단 4:11[14])는 순찰자의 명령으로 재현한다. 순찰자가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들을 자르고 그 잎사귀들을 떨고 그 열매를 흠으라”(וְרָבַבְתִּי אֶת־רֵעֵיהֶם וְרָבַבְתִּי אֶת־אֲנִי)는 명령을 전달하자, 바벨론 제국을 건축한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대한 나무는 철저히 파괴되고, 결국 이 나무 열매를 받아 생존하던 “짐승들”과 “새들”도 모두 쫓겨 떠나간다(단 4:11[14]). 이 나무에 서식하던 짐승들과 새들은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 느부갓네살의 지배 하에서 비굴하게 연명하던 각국의 식민들을 가리킨다.<sup>40)</sup> 다니엘 4장 저자가 창세기 바벨의 역사를 렌즈 삼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37)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보려면, 김대웅, “바벨 제국주의와 하나님 절대주권: 문학적 인류 이론으로 분석한 다니엘 1-2장의 창세기 10-11장 사용,” *Canon&Culture* 9:2 (2015), 213-52.

38) 다니엘서의 “אֲנָשָׁא”는 “인류”를 뜻하는 집합 명사다(단 2:38, 4:13[16], 14[17], 22[25], 29[32], 5:21, 7:8). 참조. HALOT 5:1819.

39) 집합적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 “בְּנֵי הָאָדָם”의 다른 사례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삼상 26:19, 왕상 8:39, 대하 6:30, 시 33:13, 전 2:8; 3:18-19, 21; 8:11; 9:3, 12).

40) Danna Nolan Fewell, *Circles of Sovereignty: Plotting Politics in the Book of Daniel*

사회를 들여다 본 풍경에 따르면, 옛 도시 국가 바벨의 “인류”를 흡수한 하늘의 여호와께서(창 11:5) “인간”의 제국 바벨론의 짐승 같은 구성원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흡수할 것이다(단 4:14[17], 22[25], 29[32]). 유대인 독자/청중의 견지에서 보면, 여호와가 바벨론과 그 황제에게 내린 징계는 언약 백성을 위한 보복이다. 바벨론 제국의 전제 군주가 백성을 추방했다. 그러자 이 군주는 백성의 주 자극히 높으신 이의 심판을 받아 “인간에게서 쫓겨나” 동물의 세계로 추방당한 대(단 4:22[25], 29[32], 30[33]). 느부갓네살 황제가 결국 한 마리 야수로 전락하여 동물들의 비천한 나라로 쫓겨난다는 저자의 풍자적 조롱은 유대인 독자/청중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sup>41)</sup>

#### 4. 다니엘서에 나타난 창세기 해석의 제국주의 비평: 통치권력 주제와 짐승변형 모티프

다니엘 4장의 저자에게 창세기 바벨 기사는 왜 중요했을까? 저자는 언약 백성이 외국 제왕들의 지배를 받는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sup>42)</sup> 이를 위해 저자는 이스라엘의 성경에 보존된

---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72. 다니엘서에 사용된 동물 이미지 외에도 황소, 말, 사자, 어린양, 양, 숫염소 등의 이미지들이 바벨론 제국을 나타낸다(렘 50:8, 11, 17; 51:40). 바벨론 제국 관련 동물 이미지 사용에 관하여, Alice Ogden Bellis, “The Changing Face of Babylon in Prophetic/Apocalyptic Literature: Seventh Century BCE to First Century CE and Beyond,” Lester L. Grabbe & Robert D. Haak eds., *Knowing the End from the Beginning: The Prophetic, the Apocalyptic and their Relationships*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3), 67-8.

41) 비슷하게, 강승일, “유대 문헌에 네부카드네자르로 나타난 나보니두스의 전승,” 201, 204. 216. 그러나 논자는 「나보니두스의 기도」(4Q242/4QPrNab ar)에서 느부갓네살이 나보니두스로 등장하며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는다는 강승일의 주장과 입장을 달리한다. 이 사해 문헌에 등장하는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며, 느부갓네살에 대한 풍자는 그가 느부갓네살로 등장하는 다니엘 4장에 있다.

42)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런 입장은, 김진양, “느부갓네살의

고대 바벨의 사건을 해석하여 제국주의의 정체와 본질을 다룬다. 유대인 독자/청중은 다니엘 4장을 창세기 11장의 배경 속에서 위치시킴으로써 느부갓네살 묘사를 통해 전달되는 저자의 그런 의도를 파악했을 것이다. 여호와와 하늘 영역을 꿰뚫는 탑 건축을 시도한 시날 땅 바벨인들이 반역은 실패했지만, 그 좌절이 맺힌 땅의 중심에서 “자라고,” “건고해진” 거대한 나무는 마침내 그 끝이 “하늘에 닿았다”(단 4:8, 17, 19[11, 20, 22]). 느부갓네살은 바벨탑 건축자들이 결코 극복하지 못한 거리,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무한한 공간을 가로질러 제국의 정치권력을 하늘까지 확장한다. 다니엘은 나무와 탑의 이 결정적 차이를 느부갓네살 꿈 해석을 통해 설명한다. 거대한 나무 느부갓네살의 “위대함”(גִּבּוֹר)이 하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이다(19[22]절). 그의 권세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다는 사실은, 바로 그만큼 그의 권세가 지상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17[20]절). 참으로, 이 나무는 “만인” 곧 “모든 육체”에게 자기의 “열매”를 “먹을 것”으로 공급할 정도로 대단하다(9[12]절, 18[21]절). 제국의 황제가 지배를 받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 준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땅 끝까지” 미치는 그의 절대적 “권세”에 신민들을 복종시킨다(19[22]절). 창세기 11장을 해석적으로 사용한 저자는 하늘에 닿는 황제의 정치권력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했던 대홍수 이후 인류의 반역적 갈망과 맞닿아 있음을 역설한다.

다니엘 4장 저자의 제국주의 비평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통치권 남용을 징계하며 통제하는 장면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저자는 다니엘 4장의 역사 서사와 8장의 예언 환상을 다니엘서 안에서 상호작용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유대인 독자/청중이 느부갓네살 서사를 배경으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을 깨닫도록 주도한다.<sup>43)</sup> 8장에서 “한 거룩한 자”와 “또

하나님 찬양-다니엘 4장,” 「신학연구」 63 (2013), 7-34 (특히, pp., 24-29).

43) 논자는 이것을 책의 한 부분이 다른 한 부분을 (흔히 수정을 동반한 반복의 형식으로) 광명하며 일정한 주제를 응집력 있게 끌어가는 문예 기법인 ‘내적 인용’(internal allusion)로 규정한다. 이에 관하여, Carmela Perri, “On Alluding,” *Poetics* 7:3 (1978), 300, 305. Paschal C. Viglionese, “Internal Allusion and Symmetry at the Mid-Point of Dante’s *Commedia*,” *AATI* 63:3 (1986), 239; John Hollander, *Vision and*

다른 거룩한 자”의 대화가 보도된다(8:13). 이 천사들은 4장에서 “한 거룩한 자”를 느부갓네살에게 파송한 “거룩한 자들”을 연상시킨다(4:10[13], 14[17]). 4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맡기신 인간 나라의 실제적 통치자다(14[17]절, 22[25]절, 29[32]절). 비슷하게, 8장이 내다보는 안티오쿠스의 가공할 권세 역시 결코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8:24).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주권자는 누구든 그가 원하시는 사람에게 인간 나라를 “주시기” 때문이다(4:14[17], 22[25], 29[32]). 그는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셨고”(1:2), 매일 드리는 제사 역시 안티오쿠스에게 “주어지게” 하실 것이다(8:12). 느부갓네살은 이 지극히 높으신 대주재(大主宰)께서 그의 뜻대로 “하늘의 군대”에게 행하신다고 찬미한다(4:32[35]). 같은 맥락에서 작은 별 안티오쿠스가 “하늘의 군대”에게 일삼는 만행들의 배후에도 하늘 대주재의 절대 권력이 섭리할 미래가 예고된다(8:10).

안티오쿠스와 느부갓네살의 빼어난 유비 관계는 하늘의 주권자께서 지상의 안티오쿠스에게 형벌하실 미래도 예조한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인간 나라 위에 세운 “가장 비천한 인간”이다(שָׁפֵל אֲנִישִׁים, 4:14[17]). 안티오쿠스도 “한 비천한 사람”(בְּיָדוֹ)에 지나지 않는다(11:21).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높이 들려졌듯이(4:13[16], 5:20), 안티오쿠스도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크게 한다(8:25). 하늘의 군주는 시간을 관할하는 권능으로 반역적 권세를 휘두르는 두 왕을 제어한다. 그는 야수의 심리를 갖게 된 느부갓네살 위로 일곱 “때들”(עֵתוֹת)이 지나가게 한다(4:13[16], 20[23], 22[25], 29[32]). 비슷하게, 그는 미리 “정하신 시간”(מוֹעֵד)에 안티오쿠스를 폐한다(8:19).<sup>44</sup> 이 시간은 역사의 주권자께서 세울 영원한 나라의 출현을 향해 다가간다. 그 주권자는 느부갓네살의 꿈 환상을 통해 그의 나라를 “손대지 않고”(לֹא בִידֵי) 잘려진 돌로 예고하되, 이 돌이 인간 제국들의 패권

*Resonance: Two Senses of Poetic For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135-64; Lester, “Daniel Evokes Isaiah,” 88-91.

44) 히브리어 “מוֹעֵד”는 아랍어 “عَدَّة”와 상응한다(참조 HALOT, 2:558; 5:1944).

경쟁의 역사를 궤멸할 것이라고 선언한다(2:34, 45). 따라서 안티오쿠스가 “손들로 말미암지 않고”(תְּבִנָּהּ) 깨어질 사건 역시 그 영원한 나라가 인간 제국들에 내릴 궁극적인 심판이다(8:25).

다니엘 4장에서 하나님은 매우 분명한 방식으로 인간 나라의 정치와 관련된다.<sup>45)</sup> 하나님은 지상 나라들의 정치사를 운용하며, 인간 통치자들이 “하늘의 왕”을 인정하도록 요구한다(4:34[37]). 느부갓네살을 상징한 거대한 나무가 세상 끝에서도 보인다는 사실은 그의 “권세”가 세상 전역에 미치고 있음을 뜻했다(4:19[22]).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짐승의 수준까지 끌어내린 까닭이 무엇일까? 그가 하나님께 위탁받은 권세를 남용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다니엘 4장의 저자는 자신의 느부갓네살 묘사 속에 창세기의 아담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이 사실을 알려준다. 하늘의 대주재는 그가 택한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므로써 “인간 제국”을 다스린다(4:14[17], 22[25], 29[32]). 천상의 절대자가 인간 대행자를 통해 지상을 통치한다는 다니엘서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아담 기사에서 흘러나온다.<sup>46)</sup> 거기서 창조주는 그가 창조한 세상을 통치하도록 아담을 창조하고, 그를 자기의 대리 왕으로 삼는다(창 1:26-28).

창조주가 임명한 지상 통치자 아담의 제왕 이미지는 느부갓네살 황제를 통해 구현된다. 그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맡기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단 2:38). 창세기에서 이와 똑같은 임무와 권한이 아담에게 주어졌다.<sup>47)</sup> 아담과 느부갓네살이 공유한 제왕 이미지는 탈굽 창세기 1장과 다니엘 4장의 상호 본문성을 통해 특히 잘 드러난다.<sup>48)</sup> 하나님은

45) 다니엘 4장의 정치 신학에 관하여, Klaus Koch, “Gottes Herrschaft über das Reich des Menschen: Daniel 4 im Licht neuer Funde,” A. S. van der Woude, ed., *The Book of Daniel: In the Light of New Finding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3), 112-6(특히, 113).

46) 참조. Seow, Daniel, 44. 그는 단 2:38이 창 1:26의 창조기사를 반향한다고 주장한다.

47) Jacques B. Doukhan, “Allusions à la création dans le livre de Daniel: Dépistage et Significations” A. S. van der Woude, ed., *The Book of Daniel: In the Light of New Finding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3), 286.

48) 다니엘서 저작 시점과 그 독자/청중의 환경은 아랍어를 제국 공용어로 사용한 시대였으므로

“하늘의 새들”과 “동물들”을 “다스리도록”(דָּבָר)⁴⁹) “아담”을 창조한다 (*Tg. Onq/Ps. -J./Neof.* 창 1:26). 하나님은 “아담”이 “땅에서 강해져서 (רָבִיחַ)” 그것들을 “다스리라고(דָּבָר)” 명령한다(*Tg. Onq/Ps. -J./Neof.* 창 1:28). 땅의 중앙에서 자라나 “강해져서(רָבִיחַ)” 자기의 “통치 권력”(דָּבָר)을 땅 끝까지 확장한 느부갓네살은 여러 면에서 창세기 아담의 재현이다(단 4:8[11], 17[20], 19[22]). “하늘의 새들”은 거대한 나무의 가지에 깃들이고, “들짐승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서식한다(단 4:8, 18). 이때 저지는 창세기의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종시키신 생명체들이 느부갓네살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⁵⁰) 저자가 유대인 독자/청중에게 알리는 인간 제국의 진실은 아담과 느부갓네살의 차이점을 통해 명확해 진다. 저자에 따르면, 아담과 달리, 느부갓네살은 이 피조물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창조주의 역할까지 차지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모든 짐승”과 “모든 새”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은 아담이 아니라 창조주 자신이기 때문이다(*Tg. Neof.* 창 1:30). 그러나 다니엘 4장에서 “새들”과 “짐승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자는 하늘을 침범한 거대한 나무, 제국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이다(단 4:9[12], 18[21]).

흥미롭게도, 저지는 아담의 지배를 받는 창세기의 새들과 짐승들을 자신의 바벨론 제국 묘사에서는 황제에게 복속된 신민들로 소개한다. 우리는 다니엘 4장에서 제국의 피지배 계층이 동물로 등장하는 현상에 신중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제국 사회에 대한 저자의 신학적 비평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다음 장에서 소개되듯이, 동일한 방식의 제국주의 비평이 고대 유대교의 작품들을 통해 지속되기 때문이다. 저지는 자신의 제국주의 비평을 창세기의 통치 권력 사상을 활용하여 전개한다. 창조기사에서 아담은 창조주에게서 통치 권력을 위탁받아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되, 아담 자신은 이 피조물에서 제외된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통치하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생명체들이다(창 1:26-27).

히브리어 성경의 아람어 번역인 탈군은 우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49) 이 아람어 3인칭 남성 복수형은 MT 본문 히브리어 복수형 “רָבִיחַ”를 반영한다.

50) Doukhan, “Allusions à la création dans le livre de Daniel,” 287.

그러나 창세기 아담의 제왕 이미지로 등장한 느부갓네살은 창조주께 받은 권력을 인간 집단을 다스리는 데에 사용한다.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사용하도록 정하신 권력을 느부갓네살은 인간에게 사용한다.<sup>51)</sup>

결과는 끔찍하다. 다니엘 4장의 저자는 창조주에게서 나온 통치 권력이 제국 군주의 반역 때문에 인간 사회를 흉측하게 변형시키는 무서운 사태를 초래했다고 고발한다. 본래 창조주는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탁하여 인간과 인간 아닌 피조물들 사이에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시려 했으나, 느부갓네살은 그 통치권으로 바벨론 제국을 신격화하고, 그의 식민들을 자신에게만 절대적으로 복종시킨다(다니엘 3장).<sup>52)</sup> 황제는 이 통치권으로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과 언어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인간 제국을 상징하는 금신상에 경배하도록 겁박한다(3:14-15). 그러나 다리오 왕이 선언하듯이,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뿐이다(6:27).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만인이 자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했다(5:19). 신성한 통치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느부갓네살은 이 통치권의 주권자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경배를 빼앗은 셈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국 숭배 제의를 요구하는 느부갓네살을 신적 통치권의 탈취자로 규정한다. 하나님은 이 황제에게 “큰 권세”를 위탁하셨으나, 황제는 자기 영을 완고히 하여 “교만을 행하였다”(5:18-19). 바벨탑처럼 황제의 마음이 “높아졌다”(5:20). 느부갓네살의 신적 권력 남용의 죄악을 다니엘은 이렇게 요약한다. “왕이여 ....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기만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4:24[27]).<sup>53)</sup> 창조주가 맡기신 통치권을 악용한 왕은 이제 죄악을 용서 받아야 할 위급한 처지에 있다. 급기야

51) 현대사회의 인간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관하여, Donald E. Gowan, *When Man Becomes God: Humanism and Hybris in the Old Testament* (Pittsburgh: The Pickwick Press, 1975), 117.

52) 이에 관하여, 김대웅, “느부갓네살의 금신상과 니므롯의 바벨탑: 다니엘서 제3장의 창세기 바벨 기사 인용(引喻),” 「한국개혁신학」 45 (2015), 179-205.

53) 이 구절의 사회 개념에 대한 적절한 번역 제안을 보려면, 배정훈, “다니엘서 4장 27절의 번역에 관한 연구,” *Canon&Culture* 8:1 (2014), 167-193.

하늘의 대주재는 느부갓네살 왕을 누추한 짐승으로 변형시킨다. 아담에게 부여된 신적 통치권의 본질을 변형시킨 느부갓네살은 이제 자신이 변형의 고통을 당한다. 그가 동물에게 사용할 권세를 인간에게 잘못 사용했다면, 이 권세를 왕에게 주신 창조주는 왕을 인간에서 동물로 바꾸신다. 하나님이 아담을 세상의 통치자로 삼은 이유는 그가 아담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이다(창 1:27). 즉, 아담이 창조주의 대리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그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다.<sup>54)</sup> 따라서 아담이 지닌 창조주의 형상과 아담이 창조주께 위임 받은 통치권 행사는 불가분의 관계다. 아담은 자기 속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해야만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영광도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창조주께 통치권을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그 권세로 창조주를 거역한다. 그러자 창조주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몰수한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사람의 형상을 잃고 짐승의 형상을 받는다(그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지라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된다, 4:23[26], 25[28]. 30[33]).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영광스러운 “형상”(תְּבִלְתּוֹ)으로 창조하셨으나(창 1:26, 27), 느부갓네살은 자기 신민들을 위협하여 우상의 “형상”(תְּבִלְתּוֹ)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창조주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단 3:5, 7, 10, 15). 창조주는 황제의 정신까지 인간에서 짐승으로 “변하게” 하고(단 4:13), 그의 몸을 기괴한 변종 동물로 전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서 완전히 몰수한다(단 4:30). 하나님은 아담이 다스리던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쫓아 야생의 지대로 보내셨다(창 3:23).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그가 통제하던 제국의 인간 사회에서 동물의 세계로 추방한다.

다니엘서 4장 저자의 창세기 사용을 통해 생산되는 이 모든 의미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고대 이스라엘의 평가적 관점을 반영한다. 이 평가는 창세기

54) Gowan, *When Man Becomes God: Humanism and Hybris in the Old Testament*, 127-8.

의 창조기사에 담긴 고대 이스라엘의 인간론에 근거한다. 창세기의 아담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이 왕의 타락은 세상을 파국을 초래한다. 창조주의 대리 통치자 아담처럼(창 2:26, 28), 인간 제국 정치권력의 수장 느부갓네살도 창조주에게서 권력을 부여받았다(단 4:22[25]). 자신의 범죄로 땅을 저주 받게 한 아담처럼(창 3:17), 권력을 남용한 느부갓네살도 자신이 지배하는 인간 사회를 황폐하게 한다. 그의 전체적인 통치권 행사는 통치권의 본질에 어긋난 불법이다. 이 불법 때문에 그는 짐승의 지위로 전락한다.<sup>55)</sup> 충격적이게도, 짐승으로 변신한 느부갓네살은 이미 처음부터 타인들을 짐승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창조주의 신성한 권력을 통치자가 오용하는 제국 사회에서는 그 통치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신민도 인간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사회는 야생 동물이나 새들과 같은 비인간적 존재들의 활동 영역으로 그려진다(4:9[12], 11[14], 18[21]). 이것이야말로 다니엘 4장의 저자가 폭로하는 제국 사회의 가장 음침한 측면이다. 제국의 황제는 모든 동물과 새에게 열매를 먹여주는 거대한 나무다. 그러나 황제가 정복한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종족들과 언어들”이 그가 주는 열매를 풍족하게 누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한날 짐승 무리에 불과하다(3:31[4:1]). 그지없이 인락한 제국 사회는 가장 끔찍한 짐승 황제가 주는 먹이로 생명을 연명하는 짐승들의 서식지일 뿐이다. 느부갓네살은 음식에 있어서는 소를, 머리카락은 독수리를, 발톱은 새를 닮았다(4:30[33]). 그의 변종적인 동물 이미지는 다니엘 7장의 네 제국 묘사로 이어진다. 혼돈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와 셋째 왕들도 비슷한 동물 외양을 지닌다. 첫째 왕은 사자와 독수리 이미지를, 셋째 왕은 새의 날개를 지닌 표범 이미지를 지닌다(4절, 6절). 앞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더 변형된”(שִׁנְיָהּ) 네 번째 짐승은 외모의 변형도 극심하다(19절).<sup>56)</sup> 사람의 눈들과 비슷한 눈을 가진 이 짐승은 인간과 동물을 합성한 변종으로 암시된다(8절).

55) Fewell, *Circles of Sovereignty*, 72, 143 각주 10.

56) 참조. Portier-Young, *Apocalypse against Empire*, 171: “it was mutated ...”

이런 짐승들이 현재 세상을 지배한다는 다니엘서의 세계관은 그들의 제국을 심판하며 세워질 하나님의 영원한 제국을 지향한다.<sup>57)</sup> 사자와 독수리와 곰과 표범 형상의 “파괴적인 제국들”은 장차 창조주의 심판을 당하여 통치권을 상실할 것이다.<sup>58)</sup> 짐승들의 제국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도전하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짐승 통치자들을 압도할 강력한 인간 통치자를 그 나라의 제왕으로 임명한다. 느부갓네살의 위대한 권력이 하늘에 “닿듯이”(דָּבַר, 4:17[20])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권력을 받기 위해 하늘 성전에 좌정하신 분에게 “도달한다”(דָּבַר, 7:13).<sup>59)</sup> 인간 제국의 통치자와 하나님 제국의 통치자는 그 역할에 있어서 모두 창조주의 대리 통치자 아담을 닮았다.<sup>60)</sup>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인간 제국” 위에 세우셨듯이 (4:14[17], 21[24], 29[32], 5:21), 인자 같은 이에게도 “제국”과 “통치 권력”을 주신다(7:14). 동시에 통치권과 관련하여 느부갓네살과 인자는 날카롭게 대비된다. 느부갓네살이 창조주의 절대적 주권을 거역하는 모든 인간 제국의 통치자들을 대변한다면, 인자는 그 반역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하나님 제국의

57) 다니엘서 동물 이미지의 제국주의적 표상은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에녹1서의 동물 묵시록에 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에 관하여, Paul A. Porter, *Metaphors and Monsters: A Literary-Critical Study of Daniel 7 and 8* (Toronto: Reproduction House, 1985), 43-60; and, James R. Davila, “The Animal Apocalypse and Daniel,” Gabriele Boccaccini, ed., *Enoch and Qumran Origin: New Light on a Forgotten Connec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5), 35-8.

58) Richard A. Horsley, *Revolt of the Scribes: Resistance and Apocalyptic Origi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87.

59) 인자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정규남, “다니엘 7장에 있어서의 ‘인자,’” 「성경과 신학」 2 (1984), 77-90; 김대웅, “다니엘서 인자 같은 이의 정체성,” 「성경과 신학」 90 (2019), 1-27.

60) Paul Volz, *Die Eschatologie der jüdischen Gemeinde im neutestamentlichen Zeitalter: nach den Quellen der rabbinischen, apokalyptischen und apokryphen Literatur* (Tübingen: J.C.B. Mohr, 1934), 189-90. 이런 점에서 인자는 아담, 혹은 첫 사람 (Urmensch), 첫 아담(Uradam)이다. 이 해석에 관하여, Jürg Egger, *Influences and Traditions Underlying the Vision of Daniel 7:2-14: The Research History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Fribourg: University Press Fribourg Switzerland, 2000), 94-5.

영광을 실현하는 통치자다. 하나님께 통치 권력을 넘겨받아 온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인지는 창세기 아담의 제왕 역할을 온전히 수행한다(단 7:14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나라”). 세상 끝에서 인지는 세상 처음에 있었던 조화로운 창조를 궁극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sup>61)</sup>

## 5. 창세기 비벨기사의 성경 내적 해석 전통: 다니엘 4장에서 「위-필로」와 「바룩3서」로

제국주의가 인간 사회를 동물 사회로 전락시킨다는 다니엘 4장의 풍자적 비평은 고대 유대 문학사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럼으로써 다니엘 4장 및 그와 유사한 본문들은 창세기의 바벨 기사에 관한 주석 전통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다니엘 4장의 짐승 변형 모티프는 「위-필로」(Pseudo-Philo, 주전 135년-주후 70년)와 「바룩3서」(주후 1세기-3세기)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위-필로」는 아브라함의 모범적인 경건을 상세히 주석한다.<sup>62)</sup> 바벨탑 건축의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을 위협하여 벽돌 굽는 작업에 동참하라고 위협한다. 그들에게 반대하는 아브라함은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신실한 세 젊은 유대

---

61) Herman Gunkel,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A Religio-Historical Study of Genesis 1 and Revelation 12*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6), 250. 군켈은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이 다른 형식이기는 하여도 두 번에 걸쳐 등장하는 같은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비평적 판단을 보려면, Richard J. Clifford, S. J., “The Roots of Apocalypticism in Near Eastern Myth,” John J. Collins, ed., *The Encyclopedia of Apocalypticism Vol I* (New York: Continuum, 1998), 3-5.

62) Daniel J. Harrington, “Pseudo-Philo,” James H.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vol. 2 (New York: Doubleday, 1985), 299. 최근에 제이콥슨은 「위-필로」의 저작연대를 주후 70년으로 제안했다. 이에 관하여, Howard Jacobson, *A Commentary on Pseudo-Philo's Liber Antiquitatum Biblicarum, with Latin Text and English Translation Vol 1* (Leiden: E. J. Brill, 1996), 199-210.

인 청년들의 이미지를 입는다(L.A.B. 6.4).<sup>63)</sup> 마치 그 세 청년들처럼 불타는 풀무 속으로 던져진 아브라함은 전혀 불에 소멸되지 않는 강력한 사람으로 밝혀진다(L.A.B. 6.16, 18).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시고, 풀무에서 나온 불로 탑 건축자들을 소멸한다(L.A.B. 6.17). 그러나 하나님이 보인 기사들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무리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강해져서, 결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탑 건축에 더욱 협력한다(L.A.B. 7.1). 이처럼 「위-필로」는 다니엘 3장을 창세기 11장과 통합하여 아브라함의 경건함을 부각시킨 후, 한 단계 더 나아가, 탑 건축자들의 불경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니엘 4장을 다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위-필로」의 저자는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에게 사용된 짐승 변형 모티프를 바벨탑 건축자들 묘사에 적용한다. 다니엘 4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바벨론의 건축자인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끄찍한 짐승으로 변형시킨다(단 4:30[33]). 「위-필로」의 저자가 보기에는, 바벨론 황제가 짐승으로 변한 사건은 이미 그의 선조들에게서 선례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질벽으로 몰아내어 자기들을 위해 나무줄기 등지 속에 살 곳을 짓게 하고 굴을 파게 하여 그곳에서 들짐승들처럼 살게 하리라”(L.A.B. 7:3) 하신 후, 바벨 건축자들의 “외양물들(*effigies*) ... 바꾸셨기(*mutavit*)” 때문이다(L.A.B. 7.5). 그 결과 건축자들은 새들과 야생동물의 모습으로 변형된다. 여기서 「위-필로」와 다니엘 4장의 언어적 유사성이 두 작품을 연결하는 모티프의 전이를 시사한다. 다니엘서에서 나무 아래 사는 “들짐승들”(אֲנִיּוֹת הַבְּרָאָה)로 언명된 제국의 신민들은 「위-필로」에서는 “들짐승들”(fere campi)처럼 굴혈에서 기거하는 자들로 다시 출현한다(L.A.B. 7:3; Dan 4:9, 11, 18[12, 14, 21]).<sup>64)</sup> 「위-필로」에서 등지를 짓는

63) L.A.B.는 *Liber Antiquitatum Biblicarum*의 약자로서 「위-필로」라고 알려진 무명의 유대인이 아담에서 다윗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개하고 해석한 작품이다. 간략한 소개를 보려면, Harrington, “Pseudo-Philo,” 297-303.

64) Philip Michael Sherman, “Translating the Tower: Genesis 11 and Ancient Jewish Interpretation.” Ph. D. Dissertation (Emory University, 2008), 263. 서면은 느부갓네살과 탑 건축자들에서만 언어적 유사성을 찾아낸다(Daniel 4:29 in L.A.B. 7:3). 그러나 새들과 야생동물 같은 다니엘 4장의 동물 이미지들은 거대한 나무 느부갓네살

자들은 다니엘서에서 거대한 나무의 가지에 등지를 들고 살아가는 새들을 재현한다(L.A.B. 7:3; Dan 4:9, 11, 18[12, 14, 21]). 그러므로 「위-필로」에 나타난 탑 건축자들의 두 가지 동물 이미지들은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지배당하는 식민들에게 사용된 이미지들을 상속한 셈이다(Dan 4:9, 11, 18[12, 14, 21]). 또한, 다니엘 4장의 저자와 「위-필로」의 저자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그의 절대주권에 대항하는 제국주의 사회를 심판하신다. 다니엘 4장과 「위-필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제국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천박한 짐승의 형상을 갖고 있다.<sup>65)</sup>

다니엘 4장의 제국 사회에 대한 신학적 비평은 「바룩3서」에서도 뚜렷하게 계승된다.<sup>66)</sup> 「바룩3서」의 다니엘서 차용은 그 첫 대목부터 확연하다. 다니엘서의 시작 부분처럼(단 1:1-2), 「바룩3서」의 서장 역시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성전 약탈로 시작한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유다 왕과 성전의 거룩한 기명들을 넘기셨듯이, 「바룩3서」에서도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게 예루살렘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신다(바룩3서 1:1).

---

황제와 구별되는바 바벨론 제국의 식민들을 묘사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단 4:9, 11, 18[11, 14, 21]). 「위-필로」 역시 동일한 동물 이미지를 동원하여 원시 바벨의 제국적 사회 구성원들을 묘사한다.

65) Sherman, “Translating the Tower,” 261. 이 점에서 있어서 서만은 제이콥슨에게 동의한다(Jacobson, *A Commentary on Pseudo-Philo’s Liber Antiquitatum Biblicarum*, 384). 구체적으로, 제이콥슨은 하나님이 탑 건축자들의 외양을 변화시킨 행위가 인종 간의 신체적 차이를 만드심이라고 주장한다. 논자는 서면과 제이콥슨의 주장의 설득력이 불충분하다고 본다. 「위-필로」에서 하나님이 탑 건축자들을 흡수한 행위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동물로 변형시킨 행위는 그들의 끈질긴 반역에 대한 심판으로 읽어야 마땅하다. 인간의 동물 변형에 대한 「위-필로」의 비판적 논조는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하다. 느부갓네 살 변형의 경우에서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탑 건축자들을 동물로 변화시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가진 불순한 오만함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66) Harry E. Gaylord Jr., “3 (Greek Apocalypse of) Baruch,” James H.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Vol. 2* (New York: Doubleday, 1985), 655-6. 최근에 할로우의 「바룩3서」의 저작 시기를 주후 1세기 초반에서 2세기 후반으로 보면서, 이 작품이 로마의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유대인들의 문화적 반응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이에 관하여, Daniel C. Harlow, *The Greek Apocalypse of Baruch (3 Baruch) in Hellenistic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Leiden: Brill, 1996), 9-10.

할로우(Daniel C. Harlow)가 바르게 평가하듯이, 「바룩3서」의 주인공, 예레미야의 서기 바룩은 예루살렘이 당한 파괴를 애곡한다.<sup>67)</sup>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신중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바룩의 애가가 다니엘의 애가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데에 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황폐함”(ἐρήμωσις)을 애통하며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민족들에게 “수치”(ὄνειδισμός)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슬퍼한다(LXX 단 9:16, 18).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 중일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아온다(단 9:20-21).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사랑받는 사람”(ἀνὴρ ἐπιθυμιῶν)으로 부르며,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환상을 “이해하라”(συνίημι)고 권면한다(Th. 단 9:23). 「바룩3서」에 기록된 바룩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울고 통곡하는 바룩은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으며”(ἐρήμώω),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보이도록” 허락하셨는지 날카롭게 항변한다(바룩3서 1:2). 바룩이 이 기도를 아직 드리는 중에 “주님의 천사”가 찾아오고, 바룩을 “사랑받는 사람”(ἀνὴρ ἐπιθυμιῶν)으로 부르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해하라”(συνίημι)고 권면한다(바룩3서 1:3).<sup>68)</sup>

「바룩3서」의 저자는 다니엘 1장과 9장의 문맥을 바룩의 천상 여행 장면 속으로 짜임새 있게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다니엘 4장의 짐승 변형 모티프를 계승하여 발전시킨다. 「위-필로」의 경우도 그러했듯이, 「바룩3서」는 다니엘서의 모티프를 활용하여 창세기 11장의 바벨 기사를 주석하며 개작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위-필로」와 「바룩3서」는 다니엘 4장의 짐승 변형 모티프를 전용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차이점을 나타낸다. 다니엘 4장에서 처

67) Harlow, *The Greek Apocalypse of Baruch (3 Baruch)*, 88.

68) Harlow, *The Greek Apocalypse of Baruch (3 Baruch)*, 89-90. 할로우는 「바룩3서」의 표현 “크게 사랑받는 사람”(ἀνὴρ ἐπιθυμιῶν)이 단 10:11-12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지만, 논자가 보기에는, 그가 언급한 단 10:11-12은 9:20-23과 달리, 다니엘의 애가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구체적 문맥이 없다.

림 「위-필로」에서도 짐승 변형 모티프의 목적은 반역적인 제국 사회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구현하는 데에 있다. 「바룩3서」도 다니엘 4장의 짐승 변형 모티프를 의도적으로 차용하되,<sup>69)</sup> 「위-필로」보다 더 구체적인 방식을 취한다. 다니엘 4장에는 바벨론 제국 사회를 묘사하는 두 가지 상이한 동물 이미지들이 쓰인다. 즉, 느부갓네살의 지배를 받는 신민들은 그의 꿈 환상 속에서 새들과 야생 동물들로 형상화된다. 제국 사회의 우두머리인 느부갓네살은 괴물 같은 변종 짐승으로 등장한다. 황제의 동물 형상은 그의 휘하에 있는 신민들의 자연스러운 동물 형상들에 비하여 더욱 더 혐오스럽다. 「바룩3서」는 다니엘 4장의 동물 변형 모티프를 취하되, 통치자와 부하들의 외양을 차별화한 다니엘서의 전통을 계승한다. 천사는 바룩을 이끌어 첫째 하늘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바룩은 “평원”(πεδίων)과 그곳에 “거주하는”(κατοικέω) 사람들을 본다(바룩3서 2:3). 이처럼 「바룩3서」 저자는 창세기 시날 땅 평원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 놓았다. 뿐만 아니라, 「바룩3서」 저자는 창세기 11장의 서사를 다니엘 4장의 동물 변형 모티프와 결합한다. 천상 평원에 있는 바벨 사람들은 “황소의 얼굴들,” “사슴의 뿔들,” “염소의 발굽들,” “양의 엉덩이”를 지닌다(바룩3서 2:3).

분명히, 「바룩3서」에 등장하는 짐승 형상의 바벨 사람들은 대홍수 직후 시날 땅 “평원”(πεδίων)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거주한”(πεδίων) 군중이다(LXX 창 11:2). 바룩을 안내하는 천사 파마엘은 그들이 바벨에서 탑을 건축 자들이라고 말해준다. “탑을 지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였다”(οἱ τὸν πύργον τῆς θεομαχίας οἰκοδομήσαντες)는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든 관계없이,<sup>70)</sup> 이 구절은 창세기에서 높은 탑을 세우던 자들에 대한 일종의

69) 셔만은 다니엘서가 「바룩3서」의 짐승 이미지에 끼친 영향은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문화적 풍토에 기인한다고 제안한다(Sherman, “Translating the Tower,” 263-266).

70) 「바룩3서」의 “하나님을 향하여 벌인 전쟁”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유대교적 표현일 것이다. 필로 역시 창 11:1-9을 풍유적으로 주석할 때 이 문제에 관하여 초점을 맞춘다. 필로는 그의 작품 「꿈에 관하여」(De somniis)에서 어떤 외국 통치자들을 무신론적 무정부주의자들로 묘사하는데, 그들은 광기어린 교만함으로 이론을 세우기도 하고 사나운 말을 하늘에 닿게도 한다(Somn. 2:283-284, 286, 290).

주석임은 분명하다(바룩3서 2:7). 더 중요한 것은, 「바룩3서」에서 첫째 하늘의 동물 모습의 군중은 홍수 직후 바벨의 정치 지도자들의 압제 하에 노동하던 신민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바룩의 천상 여행에서 그 정치 지도자들은 둘째 하늘에서 등장한다. 거기서 바룩은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그들이 또 다른 차원의 천상 평원에서 동물 형상을 지닌 채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된다. 언뜻 보기에, 그 지도자들의 모습은 첫째 하늘에 있던 노동자 신민들과 일정한 차이만 보인다. 그들은 “개들”의 형상을 닮았고, 발은 “사슴”의 굽과 닮았다(바룩3서 3:3). 비록 탑을 건축하는 노동자 집단과 그들의 감독자 집단의 두 가지 동물 묘사가 외양상 매우 비슷하더라도, 이 유사성의 의미를 사소한 “편집 활동의 산물” 정도로 축소하면 안 된다.<sup>71)</sup> 「바룩3서」는 창세기의 바벨을 지배 계급과 피착취 계급으로 구별함으로써 수직적 계층 구조가 확고했던 제국 사회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2)</sup> 첫째 하늘의 노동자들로 대변되는 사회적 하층 계급들이라면, 이들과 대조되는 둘째 하늘의 상층 계급은 탑 건축의 입안자와 통제자들로 밝혀진다. 그들은 “남자들과 여자들로 이뤄진 무리들을 지휘하며 벽돌을 제작하게 했다”(바룩3서 3:5). 느부갓네살 황제 역시 그의 신민들을 무자비하고 부당하게 통치한다(단 4:24). 비슷하게, 「바룩3서」의 정치 지도자들도 잔혹하게 억압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여성 벽돌공들이 출산하는 순간까지 일을 지속하도록 강요한다(바룩3서 3:5).

71) 예. Alexander Kulik, *3 Baruch: Greek-Slavonic Apocalypse of Baruch* (CEJL;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010), 139.

72) 이런 해석에 관하여, Sherman, “Translating the Tower,” 258. Harlow, *The Greek Apocalypse of Baruch (3 Baruch)*, 110. 탈무드의 한 전승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바벨 사람들은 세 가지 상이한 집단으로 나뉘는데, 그들 중 한 집단은 원숭이들로 변형된다 (*b. Sanh.* 109a).

## 6.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 4장의 창세기 바벨 기사의 사용을 성경 내적 해석의 관점에서 탐구했다. 후행 본문 다니엘 4장이 선행 본문 창세기 11장을 언어와 주제의 측면에서 다시 활용한 양상을 조사했고, 다니엘서와 창세기의 거시적 차원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으로 생산되는 의미들을 확인했다. 다니엘 4장의 창세기 바벨 기사 사용은 바벨론 군왕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옛 바벨의 반역적 건축 사업에 관하여 보존했던 집단적 기억을 반영한다. 동시에 그 기억을 통해 언약 백성의 역사적 정황을 파악하고 회복의 미래를 전망하려 했던 선지자 다니엘 신학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창세기의 바벨이 그러했듯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인류의 전 세계적 결집의 중심으로 재건하려 했고, 다니엘 4장은 이 군주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통치 권력을 남용하는 반역자로 규정한다. 바벨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지 못했던 옛 건축자들과 달리,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의 권력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다.

땅의 중앙에 심긴 나무 및 나무에 기생하는 짐승과 새들은 바벨론 제국 사회를 상징한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황제는 자기에게 통치 권력을 맡기신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 그의 비천한 짐승으로 변형되는 심판을 당한다. 이것은 제국주의 사회와 그 통치자에 대한 다니엘서의 세계관이 반영된 신학적 비평이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세상 모든 거민을 먹일 만큼 풍요로운 열매가 넘쳤으나, 제국주의에 대한 다니엘서의 묵시적 평가에 따르면, 제국의 군주와 그가 거느리는 신민들은 한낱 짐승의 군집을 형성할 뿐이다. 인간 사회에 찾아온 이 재앙은 통치 권력을 동물이 아닌 인간에게 사용한 제국의 군주의 그릇된 욕망 때문이며, 마지막 날에 건설될 영원한 하나님의 제국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의 통치 권력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인자 같은 이가 그의 권력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제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끝에 구원한 찬란한 성도들의 영원한 미래를

출범시킨다.

다니엘 4장이 창세기를 사용하여 표현한 제국주의 비평은 제2성전기 문학으로 계승되고 발전된다. 다니엘 4장처럼, 「위-필로」 역시 창세기 바벨 기사를 다시 사용한다. 아브라함은 탑 건축에 저항했고, 그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 속에서 타지 않고 구원받는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셨듯이, 바벨의 탑 건축자들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셨다. 「위-필로」의 저자는 창세기 바벨 기사와 다니엘 4장 모두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결하고 형벌 받는 인간 나라의 반역적 권력의 문제를 들여다보았던 것이다. 비슷하게, 「제3바룩서」의 저자 역시 창세기 기사들에 대한 다니엘서의 해석적 사용을 이해했고, 그 해석을 계승한다. 로마제국의 예루살렘 파괴를 다룬 이 작품에서, 주인공 바룩은 다니엘처럼 애통하며 기도한다. 바룩은 천사와 함께 하늘을 여행하며 홍수 이후 바벨의 탑 건축자들의 동물화 된 형상을 목격한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지배자와 신민 모두의 동물 모습처럼, 서로 구별되는 형상의 동물로 변해있다. 이 동물들은 하늘의 주권자께서 가두어 두시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인간의 형상을 잃은 채 고통당한다. 이처럼, 다니엘서의 짐승 변형 모티프는 창세기의 바벨이 동물의 사회로 묘사되는 유대교 주석적 전통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다니엘 4장과 관련된 이후의 문학적 반영물들은 계급적 제국주의 사회야말로 인간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인간 상호 관계의 기반을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악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 <주제어>

느부갓네살, 바벨, 성경 내적 해석, 문학적 수용, 제국주의

### <Key words>

King Nebuchadnezzar, Babel, Inner-Biblical Interpretation, Literary Nachleben, Imperialism

## 참고문헌

- 강승일, “유대 문헌에 네부카드네자르로 나타난 나보니두스의 전승,” 「인문과학 연구」 45 (2015), 201-220.
- 김대웅, “느부갓네살의 금신상과 니므롯의 바벨탑: 다니엘서 제3장의 창세기 바벨 기사 인유(引喩),” 「한국개혁신학」 45 (2015), 179-205.
- \_\_\_\_\_, “바벨 제국주의와 하나님 절대주권-문학적 인유 이론으로 분석한 다니엘 1-2장의 창세기 10-11장 사용,” *Canon&Culture* 9:2 (2015), 213-252.
- \_\_\_\_\_,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에 관한 성경 내적 해석,” *Canon&Culture* 10:2 (2016), 185-218.
- \_\_\_\_\_, “다니엘서 인자 같은 이의 정체성,” 「성경과신학」 90 (2019), 1-27.
- 김진양,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찬양-다니엘 4장,” 「신학연구」 63 (2013), 7-34 (특히, pp., 24-29).
- 배정훈, “다니엘서 4장 27절의 번역에 관한 연구,” *Canon&Culture* 8:1 (2014), 167-193.
- 정규남, “다니엘 7장에 있어서의 ‘인자,’” 「성경과 신학」 2 (1984), 77-90.
- Baltzer, Klaus, “Schriftauslegung bei Deuterijosaja?—Jes 43,22-28 als Beispiel,” Manfred Görg et al., eds., *Die Väter Israels: Beiträge zur Theologie der Patriarchenüberlieferungen im Alten Testament*,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89, 11-16.
- Bellis, Alice Ogden, “The Changing Face of Babylon in Prophetic/Apocalyptic Literature: Seventh Century BCE to First Century CE and Beyond,” Lester L. Grabbe and Robert D. Haak eds., *Knowing the End from the Beginning: The Prophetic, the Apocalyptic and their Relationships*,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3, 65-73.
- Bentzen, Aage, *Daniel*, Tübingen: Verlag von J. C. B. Mohr, 1952.
- Berger, Yitzhak, “Ruth and Inner-Biblical Allusion: The Case of 1 Samuel 25,”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8:2 (2009), 253-272.

- Bloch, Renée, “Ecriture et tradition dans l’e judaïsme: Aperçur sur l’origine du Midrash,” *Cahiers Sioniens* 8 (1954), 9-34.
- Braude, William G., *The Midrash on Psalms Vol I*,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 Buchanan, George W., *The Book of Daniel*, Lempeter: The Edwin Mellen Press, 1999.
- Calvin, John, *Book of the Prophet Daniel Vol I*, Thomas Myers, trans.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53.
- Cassuto, Umber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I from Noah to Abraham*, Jerusalem: Magnes Press, 1964.
- Colson, F. H., and G. H. Whitaker eds., *Philo: with an English Translation*, Vol. 4, London: William Heinemann LTD, 1932.
- Cook, Stephen L., “Mythological Discourse in Ezekiel and Daniel and the Rise of Apocalypticism in Israel,” Lester L. Grabbe and Robert D. Haak, eds., *Knowing the End from the Beginning: The Prophetic, the Apocalyptic and their Relationships*, London: T & T Clark International, 2003: 97-103.
- Clarke, Ernest G., *Targum Pseudo-Jonathan of the Pentateuch: Text and Concordance*, Hoboken: Ktav Publishing House, 1984.
- Clifford, Richard J., “The Roots of Apocalypticism in Near Eastern Myth,” John J. Collins ed., *The Encyclopedia of Apocalypticism Vol I*, New York: Continuum, 1998: 3-38.
- Collins, J. John,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_\_\_\_\_, “Prayer of Nabonidus,” J. C. VanderKam, ed., *Qumran Cave 4, XVII: Parabiblical Texts, Part 3*, Oxford: Clarendon Press, 1996, 83-94.
- Davila, James R., “The Animal Apocalypse and Daniel,” Gabriele Boccaccini, ed., *Enoch and Qumran Origin: New Light on a Forgotten Connec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 Co., 2005, 33-38.
- Delcor, Mathias, *Le Livre de Daniel*, Paris: J. Gabalda et Cie Éditeurs, 1971.
- Di Lella, Alexander A., "Daniel 4:7-14: Poetic Analysis and Biblical Background," Henri Cazelles et al., eds., *Mélanges bibliques et orientaux en l'honneur de M Henri Cazelles*, Kevelaer: Butzon & Bercker, 1981, 247-258.
- Draisma, Sipke, ed., *Intertextuality in Biblical Writings: Essays in Honor of Bas van Iersel*, Kampen: Uitgeversmaatschappij J. H. Kok, 1989.
- Doukhan, Jacques B., "Allusions à la création dans le livre de Daniel: Dépistage et Significations," A. S. van der Woude, ed., *The Book of Daniel: In the Light of New Finding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3, 285-292.
- Eggler, Jürg, *Influences and Traditions Underlying the Vision of Daniel 7:2-14: The Research History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Fribourg: University Press Fribourg Switzerland, 2000.
- Eliade, Mircea,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London: Sheed & Ward, 1958.
- Fewell, Danna Nolan, *Circles of Sovereignty: Plotting Politics in the Book of Daniel*,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 \_\_\_\_\_, *The Children of Israel: Reading the Bible for the Sake of Our Children*,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 Fishbane, Michael, "Torah and Tradition," Douglas A. Knight ed., *Tradition and Theology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1977, 275-300
- \_\_\_\_\_,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_\_\_\_\_, "The Hebrew Bible and Exegetical Tradition," Johannes C. de Moor, ed., *Intertextuality in Ugarit and Israel: papers read at the tenth Joint Meeting of the 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y and Het Oudtestamentisch Werkgezelschap in Nederland en België, held at*

- Oxford*, Leiden: E.J. Brill, 1998, 15-30.
- Flint, Peter W., "The Daniel Tradition at Qumran," John J. Collins and idem., eds., *The Book of Daniel: Composition and Reception Vol II*, Leiden: Brill, 2001: 327-367.
- Gaylord Jr., Harry E., "3 (Greek Apocalypse of) Baruch," in James H.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Vol. 2, New York: Doubleday, 1985, 655-656.
- Goldsmith, Steven, *Unbuilding Jerusalem: Apocalypse and Romantic Represent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Gowan, Donald E., *When Man Becomes God: Humanism and Hybris in the Old Testament*, Pittsburgh: The Pickwick Press, 1975.
- Gunkel, Herman,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A Religio-Historical Study of Genesis 1 and Revelation 12*,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6.
- Haag, Ernst, *Daniel*, Würzburg: Echter Verlag, 1993.
- Harlow, Daniel C., *The Greek Apocalypse of Baruch (3 Baruch) in Hellenistic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Leiden: Brill, 1996.
- Harrington, Daniel J., "Pseudo-Philo," James H.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Vol. 2, New York: Doubleday, 1985, 297-377.
- Hartman, Louis F., "The Great Tree and Nabuchodonosor's Madness," John L. McKenzie, S.J., ed., *The Bible in Current Catholic Thought*,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62.
- Hebel, Udo J., *Intertextuality, Allusion, and Quotation: An International Bibliography of Critical Studies*, Westport: Greenwood Press, 1989.
- Henze, Matthias, *The Madness of King Nebuchadnezzar: The Ancient Near Eastern Origins and Early History of Interpretation of Daniel 4*, Leiden: Brill, 1999.
- \_\_\_\_\_, "Babylon Remembered: Nebuchadnezzar in the Collective Memory of Ancient Israel," Károly Dániel Dobos and Miklós Köszeghy, eds.,

- With Wisdom as a Robe: Qumran and Other Jewish Studies in Honor of Ida Fröhlich*,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9, 108-120.
- Hollander, John, *The Figure of Echo: A Mode of Allusion in Milton and Aft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 \_\_\_\_\_, *Vision and Resonance: Two Senses of Poetic For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 Horsley, Richard A., *Scribes, Visionaries, and the Politics of Second Temple Judea*,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 \_\_\_\_\_, *Revolt of the Scribes: Resistance and Apocalyptic Origi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 Howard-Brook, *Wes & Anthony Gwyther, Unveiling Empire: Reading Revelation Then and Now*, Maryknoll: Orbis Books, 1999.
- Hrushovski, Benjamin, "Theory of the Literary Text and the Structure of Non-Narrative Fiction: In the First Episode of War and Peace," *Poetics Today* 9:3 (1988), 636-666.
- Jacobson, Howard, *A Commentary on Pseudo-Philo's Liber Antiquitatum Biblicarum, with Latin Text and English Translation 2 vols*, Leiden: E.J. Brill, 1996.
- Kim, Daewoong,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Daniel," Ph. D. Dissertation, Rice University, 2013.
- Koch, Klaus, "Gottes Herrschaft über das Reich des Menschen: Daniel 4 im Licht neuer Funde," A. S. van der Woude, ed., *The Book of Daniel: In the Light of New Finding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3, 77-119.
- Kulik, Alexander, *3 Baruch: Greek-Slavonic Apocalypse of Baruch*,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010.
- Kvanvig, Helge S., *Roots of Apocalyptic: The Mesopotamian Background of the Enoch Figure and the Son of Man*,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88.
- Kugel, James, "The Bible's Earliest Interpreters," *Prooftexts* 7:3 (1987),

269-283.

- \_\_\_\_\_, *Traditions of the Bible: A Guide to the Bible As it Was at the Start of the Common Era*,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Lacocque, André, *The Book of Daniel*, Atlanta: John Knox Press, 1979.
- Langdon, Stephen, *Building Inscriptions of the Neo-Babylonian Empire: Part I Nabopolassar and Nebuchadnezzar*, Paris: Ernest Leroux, 1905.
- Leeuw, G. van der.,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Trans. J. E. Turne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38.
- Leonard, Jeffery M., "Identifying Inner-Biblical Allusions: Psalm 78 as a Test Cas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7:2 (2008), 241-265.
- Lester, G. Brooke, "Daniel Evokes Isaiah: The Rule of the Nations in Apocalyptic Allusion-Narrative," Ph. 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2006.
- Macho, Alejandro Díez, *Neophyti 1: Targum Palestinense MS de la Biblioteca Vaticana Tomo I Génesis*, Madrid: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1968.
- Marcus, David, *From Balaam to Jonah: Anti-Prophetic Satire in the Hebrew Bible*, Atlanta: Scholars Press, 1995.
- Metzger, Martin, "Zeder, Weinstock und Weltenbaum," D. R. Daniels et al. eds., *Ernten, was man sät: Festschrift für Klaus Koch zu seinem 65 Geburtsta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1, 197-229.
- \_\_\_\_\_, "Der Weltenbaum in vorderorientalischer Bildtradition," W. Härle et al., eds., *Unsere Welt-Gottes Schöpfung: Eberhard Wölfel zum 65 Geburtstag am 16 April 1992*, Marburg: N. G. Elwert Verlag, 1992, 1-34.
- Merino, Luis Díez, "Los 'vigilantes' en la literatura intertestamentaria," N. Fernandez Marcos et al., eds., *Simposio Bíblico Español: Salamanca, 1982*, Madrid: Universidad Complutense, 1984, 575-605.
- Miller, Stephen R., *Daniel*,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 Moore, Stephen D., *Empires and Apocalypse: Postcolonialism and the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6.
- Mulder, Martin Jan, and Harry Sysling, eds., *Mikra: Text, Translation,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Hebrew Bible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Assen: Van Gorcum, 1988.
- Patterson, Stephen J., "The End of Apocalypse: Rethinking the Eschatological Jesus," *Theology Today* 52 (1995), 29-48.
- Parpola, Simo, "The Assyrian Tree of Life: Tracing the Origins of Jewish Monotheism and Greek Philosophy,"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52:3 (1993), 161-208.
- Perri, Carmela, "On Alluding," *Poetics* 7:3 (1978), 289-307.
- Porter, Paul A., *Metaphors and Monsters: A Literary-Critical Study of Daniel 7 and 8*, Toronto: Reproduction House, 1985.
- Portier-Young, *Anathea, Apocalypse against Empire: Theologies of Resistance in Early Judais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1.
- Rom-Shiloni, Dalit, "'How can you say, I am not defiled ...?' (Jeremiah 2:20-25): Allusions to Priestly Legal Traditions in the Poetry of Jeremia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3:4 (2014), 757-775.
- Salomon, Buber, *Midrash Tehilim*, Jerusalem: H. Vagshal, 1976.
- Sarna, Nahum, "Psalm 89: A Study in Inner Biblical Exegesis," A. Altmann, ed., *Biblical and Other Stud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63, 29-46.
- Seeligmann, Isaac Leo, "Voraussetzungen der Midraschexegese," G. W. Anderson, ed., *Congress Volume: Copenhagen, 1953*, Leiden: Brill, 1953, 150-181.
- Seow, C. L., *Dani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Sherman, Phillip Michael, "Translating the Tower: Genesis 11 and Ancient Jewish Interpretation," Ph.D. Dissertation, Emory University, 2008.

- Sommer, Benjamin, *A Prophet Reads Scripture: Allusion in Isaiah 40-66*,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Sperber, Alexander, ed., *The Pentateuch according to Targum Onkelos*, Vol. 1 of Bible in Aramaic, Based on Old Manuscripts and Printed Texts, Leiden: Brill, 1959.
- Steinmann, Andrew E., *Daniel*,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8.
- Towner, W. Sibley, "The Poetic Passages of Daniel 1-6,"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1:3 (1969), 317-326.
- Vermes, Geza, "Bible and Midrash: Early Old Testament Exegesis," P. R. Ackroyd and C. F. Evan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ume I: From the Beginnings to Jero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29-46.
- Viglionese, Paschal C., "Internal Allusion and Symmetry at the Mid-Point of Dante's *Commedia*,"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Italian* 63:3 (1986), 237-249.
- Volz, Paul, *Die Eschatologie der jüdischen Gemeinde im neutestamentlichen Zeitalter: nach den Quellen der rabbinischen, apokalyptischen und apokryphen Literatur*, Tübingen: J. C. B. Mohr, 1934.
- Weisman, Ze'ev, *Political Satire in the Bible*, Atlanta: Scholars Press, 1998.
- Wills, Lawrence M., *The Jew in the Court of the Foreign King: Ancient Jewish Court Legend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Yamauchi, Edwin M., "Hermeneutical Issues in the Book of Daniel,"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3:1 (1980), 13-21.

<초록>

## 다니엘 4장의 성경 내적 해석

- 반(反) 제국주의 비평과 고대 유대 문학의 수용 -

김대웅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교수)

본 논문은 다니엘 4장의 창세기 바벨 기사의 사용을 성경 내적 해석을 다룬다. 다니엘 4장이 창세기 11장을 언어와 주제의 측면에서 다시 활용한 양상을 조사하고, 다니엘서와 창세기의 거시적 차원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으로 생산되는 의미들을 탐구한다. 다니엘 4장의 창세기 바벨 기사 사용은 바벨론 군왕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옛 바벨의 반역적 건축 사업에 관하여 보존했던 집단적 기억을 반영한다. 동시에 그 기억을 통해 언약 백성의 역사적 정황을 파악하고 회복의 미래를 전망하려 했던 선지자 다니엘 신학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땅의 중앙에 심긴 나무 및 나무에 기생하는 짐승과 새들은 바벨론 제국 사회를 상징한다. 황제는 자기에게 통치 권력을 맡기신 하늘의 절대군왕을 인정하기까지 비천한 짐승으로 변형된다. 이것은 제국주의 사회와 그 통치자에 대한 다니엘서의 세계관이 반영된 신학적 비평이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세상 모든 거민을 먹일 만큼 풍요로운 열매가 넘쳤으나, 제국의 군주와 그가 거느리는 신민들은 한날 짐승의 군집을 형성할 뿐이다. 인간 사회에 찾아온 이 재앙은 통치 권력을 동물이 아닌 인간에게 사용한 제국의 군주의 그릇된 욕망 때문이며, 마지막 날에 건설될 영원한 하나님의 제국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의 통치 권력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다니엘 4장이 창세기를 해석하며 제시한 제국주의 비평은 제2성전기 문학으로 계승되고 발전된다. 「위-필로」 역시 창세기 바벨 기사를 다시 사용한다. 「위-필로」의 저자는 창세기 바벨 기사와 다니엘

4장 모두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결하고 형벌 받는 인간 나라의 반역적 권력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비슷하게, 「제3바룩서」의 저자 역시 창세기 기사들에 대한 다니엘서의 해석적 사용을 이해하고 발전시킨다. 로마제국의 예루살렘 파괴를 다룬 이 작품에서, 주인공 바룩은 다니엘처럼 애통하며 기도한다. 바룩은 천사와 함께 하늘을 여행하며 홍수 이후 바벨의 탑 건축자들의 동물 형상을 목격한다. 그들은 하늘의 주권자께서 가두어 두시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인간의 형상을 잃은 채 고통당한다. 다니엘서의 짐승 변형 모티프는 창세기의 바벨이 동물의 사회로 묘사되는 유대교 주석적 전통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다니엘 4장과 관련된 이후의 문학적 반영물들은 계급적 제국주의 사회야말로 인간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인간 상호 관계의 기반을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악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Abstract>

## Inner-Biblical Interpretation in Daniel 4: Theological Critique of Imperialism and its Literary *Nachleben* in Early Judaism

Assistant Prof. Daewoong Kim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In this essay the account of Nebuchadnezzar's confession in Daniel 4 is analyzed in light of inner-biblical interpretation, with a focus on the theological satire on the Babylonian Empire as well as Daniel's intention for maximizing the satirical effect on it. Its major concern is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ways in which eschatological vision of the Divine Empire functions as an apocalyptic criticism of humankind's abuse of the divinely given dominium. This point discovers a fine expression as Daniel 4 appropriates and activates textual elements of the Genesis Babel story. The main sign of use of the Genesis Babel account in Daniel 4 is the plot-structure that is shared between Daniel 4 and Gen 11:1-9 to constitute a large intertextual pattern: the human going-up to the transcendent versus the divine going-down to the mundane. Through this common plot the theme of the Genesis Babel story is introduced to and intensified in Daniel 4—the theme that proves God's continuous victory over humankind's rebellion against God's absolute domination. In wider referential horizon of each context Daniel 4 interacts with the narrative in Genesis 11. Nebuchadnezzar the builder of the great Babylon evokes architects of the city Babel of old. The gigantic tree symbolic of the tyrant is also reminiscent of the lofty tower. The use of Genesis 11 in Daniel re-activates ancient Israel's collective memory of Babel as the center of the

dispersion of humankind after the Flood. Nebuchadnezzar's political magnificence expands from the middle of the earth unto the heaven, while embodying human transcendence of the indefinite distance from the mundane to the celestial—the distance that earlier thwarted the attempt of the architects at the primordial Babel. However, the Most High God humiliates the arrogant emperor until his full recognition of God's dominion. Thus, Nebuchadnezzar became a hybrid-animal during seven times. This satirical portraiture of ancient imperialism in Daniel 4 is well intensified by its impact on Early Jewish literature such as Pseudo-Philo and Third Baruch. The motif of theriomorphic metamorphosis is in transmission from Daniel's Nebuchadnezzar to Pseudo-Philo's tower-builders. The authors of Daniel 4 and Pseudo-Philo envision God as hostile to the imperial social system that defies God's sovereignty. For both authors, the bestial transformation is God's punishment on rebels (pace Jacobson 1996, Sherman 2008). Likewise, The dehumanized form of the imperial society in Daniel 4 finds a closer analogy in 3 Baruch (first to second centuries a.d.). In taking up the motif of bestial transformation in Daniel 4, 3 Baruch follows the Danielic distinction in form between the master and the subordinate. 3 Baruch deliberately envisages a hierarchical imperial society by depicting two separate groups that are divided into governing class and exploited class. King Nebuchadnezzar dominates his subjects ruthlessly and unjustly (Dan 4:24). Similarly, these leaders are characterized as brutally oppressive. The Danielic motif of bestial transformation is formative in the Jewish exegetical tradition in which Babel is represented as an animalized society. Various using the motif, both Daniel 4 and its literary reflexes conceptualize in common the hierarchical imperial society as the great social evil that degrades humankind and dismantles the human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